

‘폭풍 찌는 폭염’ 지역 농산물 가격 오름세

양동시장서 상추값 2주전 比 100% ↑

햇품 출하로 깎마늘·청양고추 등 하락

광주 지역 전통시장 농수산물 가격이 폭염으로 인한 생육 부진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격경보지 2513호’에 따르면 전남 기준으로 광주 서구 양동시장의 배추(봄배추·1포기)와 대파(1kg)

소매 가격은 각각 3천800원·2천540원으로 2주 전보다 10.3%·10.0% 올랐다.

또한 호박(애호박·1개)은 1천160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 상승했으며 이 기간 특히 상추가 100%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 같은 가격 상승 이유로는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가의 출하량 저조에 따른 것으로 지역분부는 분석했다.

반면 햇품 출하가 본격화된 작물들은 공급 증가로 가격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다.

깎마늘(대서·1kg)은 2주 전보다 43% 내린 1만 1천원, 청양고추(100g)는 3.9% 내린 730원에 거래됐으며 출하 막바지에 접어든 참외(10개)는 2주 전보다 17% 내린 1만6천600원에 판매됐다.

같은 기간 당근(무세척·1kg)은 26.8% 하락했고 무(1개)는 변동이 없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26.8%·16.7% 하락했다.

수산물의 경우 조업 부진으로 어획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기온상승에 따라 소비 수요가 줄어들면서 고등어(마리)와 다시마(100g)는 각각 2

주 전과 같은 가격인 5천600원·1천770원을 유지했다.

과채류는 저장·수요 등의 이유로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사과(후지·10개)는 2주 전 대비 8.5% 오른 4만2천원에 팔리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21% 상승한 가격이다.

배(신고·10개)는 4만2천500원으로 2주 전과 지난해 각각 비교하면 5.6%, 30.6% 하락한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수박(1개·8~10kg)은 2만6천700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3.5%, 29.0% 상승했다.

aT 관계자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해 업체류 위주 가격이 상승했고 당근과 무는 저장 물량이 많아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작황 부진으로 향후에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박의 경우는 작황도 좋지 않는 데다 여름철 수요까지 많아져 가격 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벤츠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 연결하면 요금결제까지

한전, 플러그 앤 차지 서비스 제공 계약

한국전력이 메르세데스-벤츠와 ‘Plug & Charge’ 서비스 협력을 통해 국내 전기차 이용자에게 더욱 편리한 충전 경험을 제공한다.

한전은 8일 “전기차 사용자들의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AG (Mercedes-Benz Mobility AG)와 플러그 앤 차지(Plug & Charge, 이하 PnC)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nC는 전기차에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차량 정보를 인식해 사용자 인증과 충전 요금 결제를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

해 전기차 사용자에게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한 전기차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전은 PnC 서비스에 필요한 EVC 전자인증서 발행 등 토털 솔루션을 메르세데스-벤츠에 제공하고 벤츠는 전자인증서를 차량에 탑재하고 한전 솔루션을 활용한 PnC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전은 국제표준 통신규약(ISO-15118) 전기자동차의 충전 시퀀스 제어를 위해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사이의 통신을 정의하는 국제표준 통신 규약을 적용한 PnC 기술을 개발해 2024년 상용화했으며 충전사업자인 GS차지비, KEVIT과 이미

계약을 체결해 Pn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은 PnC 서비스를 모든 전기차 제조사와 약 150개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극 제공해 국내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날 계약식에 참석한 이상원 한전 에너지신사업처장은 “메르세데스-벤츠와의 협력으로 전기차 이용자에게 한 차원 높은 PnC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기차 제조사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없이 PnC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모든 전기차 제조사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재만 기자

(주)지금강이엔지 ‘건답직과 신기술’ 현장 평가회 개최

나주 동강면서 성과 확인

기존 농기계와 차별성 인정받아

농기계 제조업체 (주)지금강이엔지는 8일 “나주 동강면에서 운병대 나주시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농업인과 지자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논 마른 논씨레질(무씨레) 이앙과 건답직과 신기술’의 성과를 확인하는 벼 초기 생육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기존 논은 1970~80년대 소형 농기계 사용 시기에 조성돼 주로 2천975.2㎡~3천966.9㎡(약 900~1천200평) 단위로 나뉘 있어 논둑과 배수로 농로 면적이 많아 대형 농기계 활용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0.4ha 단위로 13개를 통합해 약 4.3ha(1만3천평) 규모의 대규모 필지를 조성하고 논둑과 관배수로를 제거한 후 자동·반자동 관개 시스템(개랑물꼬)을 도입했다.

또한 콘크리트 논둑을 반영구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던 논둑 정비와 제초 작업을 대폭 줄였다.

(주)지금강이엔지는 이러한 기반 위에 마른논 이앙과 건답직과 신농법에 특화된 농기계 4종(멀티롤고속쟁기, 레이저균평기, 정밀파종기, 볏소프레이어)을 새롭게 개발·생산해 보급하고 있다.

이들 기계는 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수분, 온도, 산소 조건을 제어할 수 있는 노지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며 특히 기존 농기계와의 차별성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박광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러한 대규모 기반 정비와 신농법, 신기술 농기계의 결합은 논·밭농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 ESG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태호 기자



제철과일 디저트 광주신세계 본관 1층 ‘노티드’ 매장에서 모델들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제철 식재료인 수박과 초당옥수수로 만든 수박화채와 초당옥수수 크림 도넛 등 색다른 디저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지방조달청, 레미콘 납품현장 기동점검

광주지방조달청은 8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제1~4공구’ 건설 현장을 찾아 레미콘 기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총 78.3km를 잇는 호남고속철도의 마지막 단계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레미콘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적기 준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조달청의 요청으로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레미콘 납품

현장을 불시히 방문해 ▲품질 관리 실태 ▲계약규격 준수 여부 ▲납품량 확인 등 전반적인 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KS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비율을 확인했다.

김우환 광주조달청장은 “레미콘은 공공 건설의 구조물 안정성과 직결되는 핵심 자재로 납품과정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부적합 자재의 납품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건설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여름철 폭염 운영질한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운영질한 예방 기본수칙

- 3바늘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동!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생!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조선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3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2024년 신축한 담양상설시장과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에 200여분 이상의 상인들이 장터를 마련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

1. 담양상설시장 - 매일(휴무 : 2, 4째주 월요일 / 단, 장날일 경우 화요일)
2. 담양시장 - 매달 2일, 7일
3. 창평시장 - 매달 5일, 10일
4. 대전시장 - 매달 3일, 8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TV> 후원 : <담양군> 광고문의 : 062)650-2099